

# 古代 韓日關係 연구의 基本視角\*

고대명예교수  
강사 최재석

目 次	
I. 古代 韓日關係 연구 문헌	V. 大和倭·日本의 造船·航海 水準
II. 日本史書	VI. 唐과 日本과의 關係
III. 大和倭와 日本	VII. 統一新羅와 日本의 관계
IV. A.D 700년의 日本열도의 人口구성	

## I. 古代 韓日關係 연구 문헌

- 1) 李基白, 古代韓日關係史 연구의 方向, 「新東亞」 1973년 1월호 (「韓國古代史論」 1973년에 수록).
- 2) 洪淳熙, 7~8세기에 있어서의 新羅와 日本과의 關係, 「韓日 古代文化交涉史 研究—佛敎文化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1974.
- 3) \_\_\_\_\_, 統一新羅의 對日本關係研究, 「國史館論叢」 31, 1992.
- 4) 申滢植, 統一新羅와 對日關係, 「統一新羅史의 研究」 1990.
- 5) \_\_\_\_\_, 新羅의 對日關係史 研究, 「古代 韓日文化 交流 研究」 1990.
- 6) 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1991.
- 7)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1990. (10개 論文)
- 8) \_\_\_\_\_, 「日本 古代史研究 批判」 1990. (10개 論文)

- 9) \_\_\_\_\_,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1993. (14개 論文)

## II. 日本史書

- 1) 六國史(官撰史書)
  - ① 日本書紀(720년간, 초기~696년)
  - ② 續日本紀(697~791)
  - ③ 日本後紀(792~833)
  - ④ 續日本後紀(834~850)
  - ⑤ 文德天皇實錄(850~858)
  - ⑥ 日本三代實錄(858~887)
- 2) 사실의 기록과 조작·외국의 기록
  - ① 「日本書紀」「古事記」의 조작기록 事例
  - ② 「續日本後紀」의 음폐·왜곡 기록 事例
 日本僧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와 「續日本紀」의 對比
  - ③ 사실의 기록(稀少·음폐·윤색되어 있음) 사례 11개(「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pp.567~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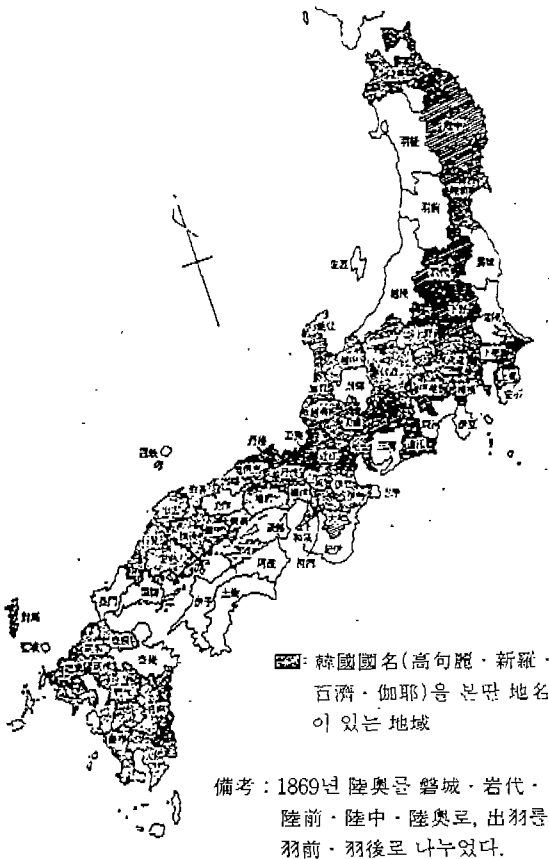
\* 본 논문은 1994년도 추계학술대회 특강내용임.

〈표 1〉 歷代 倭王의 壽命(吉田武彦)

倭 王 名	日 本 書 紀	古 事 記
1 神武	127세(63.5세)	137세(68.5세)
2 綏靖	84세(42 세)	45세(22.5세)
3 安寧	57세(28.5세)	49세(24.5세)
4 懿德	<77세(38.5세)>	45세(22.5세)
5 孝昭	<113세(15.6세)>	93세(46.5세)
6 孝安	<137세(68.5세)>	123세(61.5세)
7 孝靈	<128세(64 세)>	106세(53 세)
8 孝元	<116세(58 세)>	57세(28.5세)
9 開化	<111세(55.5세)> 또는 115세(57.5세)	63세(31.5세)
10 崇神	120세(60 세)	168세(84 세)
11 垂仁	140세(70 세)	153세(76.5세)
12 景行	106세(53 세)	137세(68.5세)
13 成務	107세(53.5세)	95세(47.5세)
14 仲哀	52세(26 세)	52세(26 세)
(神功皇后)	100세(50 세)	100세(50 세)
15 應神	110세(55 세)	130세(65 세)
16 仁德	?	83세(41.5세)
17 履中	70세(35 세)	64세(32 세)
18 反正	?	60세(30 세)
19 允恭	?	78세(39 세)
20 安康	?	56세(28 세)
21 雄略	?	124세(62 세)
22 清寧	약간	?
23 顯宗	?	38세(19 세)
24 仁賢	?	?
25 武烈	?	?
26 繼體	82세(41 세)	43세(21.5세)
27 安閑	70세(35 세)	?
28 宣化	73세(36.5세)	?
29 欽明	약간	?
30 敏達	?	?
31 用明	?	?
32 崇峻	?	?
33 推古	75세(37.5세)	?

### Ⅲ. 大和倭와 日本

- 1) 3세기 이전의 일본열도내의 倭國의 수
- 2) 3세기의 일본열도내의 倭國의 수(晋書)
- 3) 「日本書紀」에 나타난 倭國의 수
- 4) 國號의 변경과 그 시기(倭---日本)
- 5) 地名으로 본 日本列島



(그림 1) 韓國國名을 본딴 地名이 있는 地域

#### 6) 大和倭왕의 본래의 國籍(「日本書紀」)

① (11年) 秋七月 詔曰 今年 造作大宮及大寺 則以百濟川側爲宮處 是以 西民 造宮 東民作寺(舒明紀 11年 7月)

② (11年) 是月 於百濟川側 建九重塔

③ (12年) 是月 徙於百濟宮

④ (13年) 於十月己丑朔 丁酉 天皇崩于百濟宮

⑤ (13年) (冬十月) 丙午 殞於北宮 是謂 百濟大殯 是時東宮 開別皇子 年十六而誅之(「日本書紀」舒明紀 11年~13年)

지금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① 舒明天皇 11년(서기 639년) 秋 7월에 詔하여 今年에 큰 궁전과 큰 절을 짓겠다고 말씀하였다. 그래서 百濟川 근처를 宮處로 하였으며 西部의 백성은 궁전을 짓고 東部の 백성은 절(寺)을 짓게 하였다.

② 是月(12월)에 百濟川 근처에 九重塔을 세웠다.

③ (12년) 是月(冬 10월)에 百濟宮으로 이사하였다.

④ 13년(서기 641년) 冬10월 9일에 舒明天皇이 百濟宮에서 돌아가셨다.

⑤ (13年 冬 10월) 18일에 百濟宮의 북쪽에 殯宮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을 百濟의 大殯이라 한다. 이때 東宮인 開別皇子는 나이 16세이며 哀悼의 말을 하였다.

### Ⅳ. A.D 700년의 일본열도의 人口구성

직원화랑(Hanihara Kazuro): 80~90%가 아세아 대륙인

崔在錫: 80~90%가 고대 한국인

근거: ① 日本古墳의 出土品

② 日本열도를 뒤덮고 있는 韓國地名

③ 佛寺·神社

④ 高市郡 人口 10명중 8~9명은 百濟人

(「續日本紀」寶龜 3(772) 4월)

### V. 大和倭·日本의 造船·航海 水準

B1. 齊明 3년 是歲(657). 使를 新羅에 보내 沙門

智達·間人達御廢·依網達稚子 등을 新羅國의 使에 붙여 大唐에 보내고 싶다고 하였으나 新羅가 듣지 않아 沙門智達 등이 그대로 귀국하였다. (『日本書紀』)

B<sub>2</sub>. 承和 6년(839) 7월 17일. 大宰府에 명령하여 新羅 배를 만들게 하였다. 신라배는 능히 風波를 이겨낸다.

B<sub>3</sub>. 承和 7년(841) 9월 15일. 大宰府 보고에 對馬島司가 말하기를 멀리 바다의 風波가 위험하오니 年中 貢物이나 4번의 公文도 빈번히 漂沒하였다. 傳聞컨대 新羅 배는 능히 파도를 헤치고 나간다. 新羅 배 6척 중 1척을 分給할 것을 청하니 그렇게 하였다. (이상 『續日本後紀』)

B<sub>4</sub>. 天平寶字 6년(762) 4월 17일. 遺唐使가 배를 타고 安藝國(岡山)에서 難波江口(大阪)에 도착하였는데 여울에서 배가 뜨지 않고 끌어도 여의치 않아 출발하지 못하였는데 파도에 동요하여 船尾가 파열되었다. (『續日本紀』)

B<sub>5</sub>. 承和 6년(839) 8월 20일. 唐에 도착한 (日本船) 3개 배가 日本船舶의 부실함을 싫어하여 楚州에서 新羅 배 9척을 빌어서 귀국하였다. (『入唐求法巡禮行記』)

다같이 견당조공사로 임명된 大使와 副使간의 불화에 의해서도 그들의 조선기술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大使와 副使는 王京을 떠나 大宰府로 향할 때도 함께 王京을 떠나지 않고 따로따로 떠났으며 大使와 副使는 보다 견고한 선박의 쟁탈을 벌여, 副使는 드디어 병을 핑계로 上船하지 않아 처벌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거기에 거의 죽을 것이라 짐작되는 遺唐船의 上船을 기피하는 船員을 독려하기 위하여 日本 조정은 上船督勵使(勸發使)를 멀리 항구에까지 파견하여 출발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위계서열이 아래인 副使가 大使가 타는 배보다 더 견고한 배를 타려고 大使에 도전하는 것은 당시 日本의 항해술과 조선술이 유치하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또 하나의 자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항해 수준이 이상과 같았으니 일본은 불가피적으로 중국에 갈려면 신라의 지도와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신라가 일본을 도와준 사업의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遺唐 日本 조공사의 入唐
- ② 遺唐 日本 조공사의 歸國
- ③ 日本 留學僧의 入唐
- ④ 唐나라 파견 日本 留學僧의 歸國
- ⑤ 在唐 日本 조공사의 편지를 日本에 전함
- ⑥ 新羅 유학 日本僧의 歸國

〈표 2〉 新羅 - 渤海에 의한 日本의 海外 航海지도 보호

연대	新羅의 日本보호	渤海의 日本보호
657	日本の 遺唐使 파견 협조를 新羅가 거절하여 되돌아감	
658	日本學問僧 新羅배로 入唐	
684	遺唐 日本 학문승 新羅배로 귀국	
687	新羅留學 日僧 新羅배로 귀국	
689	新羅留學 日僧 新羅배로 귀국	
690	遺唐 日本學問僧 新羅배로 귀국	
739		遺唐 日本判官(平群廣成)이 渤海배로 귀국
759		在唐 日本使(藤原河清)를 데리러가는 使人이 渤海배로 출발
783		遺唐 日本學問僧(戒融)이 渤海로 와서 渤海배로 귀국

784	遣唐日本學問僧(戒融)의 귀국후 소식을 알릴 것을 전함	
769	遣唐日本大使(藤原河清)의 편지를 일본에 전해줌	
770	上同	
772		遣唐日本學問僧(永忠)이 渤海使를 따라 출발
774	在唐日本大使(藤原)의 편지를 日本에 전함	
779	在唐日本判官을 新羅가 귀국케함	
795		在唐日本學問僧(永忠)의 편지를 전함
798		在唐日本學問僧(永忠)의 편지를 전하고 그에게 보내는 日本정부의 편지와 돈을 전함
825		在唐日本學問僧(靈仙)에 보내는 日本정부의 돈을 전함
825		靈仙이 부탁한 물건을 가져다주고 日本정부는 황금 100량을 그에게 전할 것을 부탁
828		日本으로부터 부탁받은 황금을 靈仙이 있는 곳까지 이룸
838	新羅人の 航海지도로 日本의 遣唐使 唐나라 도착	
839~	遣唐日本조공사일행이 新羅인이 운행하는 新羅	
840	배 9척으로 귀국	
841		이전에 靈仙에 전해줄 것을 부탁받은 황금 100량에 대한 전말을 전해줌
843	入唐僧(仁好·順昌)을 新羅인이 귀국케함	
845	日本人 표류자 50여명을 中國 廣東에서 데리고 오다	
847	日本僧(圓仁 등) 新羅배로 귀국	

## VI. 唐과 日本과의 關係

唐나라에서의 日本사신의 위치

① 중국에 파견된 日本入使節團(朝貢使)과 在唐新羅租界나 中國官憲과의 교섭은 일본인 통역이 아니라 함께 배를 타고간 신라인 통역이 담당하였다.

② 중국에 파견된 日本大使(朝貢大使)는 그가 함께 데리고간 한낱 日僧(圓仁)의 中國滯留許可를 얻어 낼 수 없었다.

③ 日本大使의 秘書(從子)가 중국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체포되었다.

④ 중국과 신라 두 나라끼리 國際文書를 주고

받으며 중국에 표류된 일본인 50여명을 신라가 일본으로 귀국시켜 주었다.

⑤ 일본인은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在唐新羅租界의 일원이라는 新羅租界 總督의 보증에 의

<표 3> 日本의 對外사절 파견국과 파견회수

연 대	파 견 국	
	중 국	신 라
668~701	.	12
702~709	1	3
710~784	4	12
785~900	2	9
계	7	36

〈표 4〉 日本의 遣唐朝貢使 派遣과 成功 與否

回 數	出發日時	到着日時	제일 먼저 到着한 곳	成 功 與 否
1회	702. 6.29.	704. 7. 1.		成功
2회	717. 3. 9.	718.10.20.	大宰府	成功
3회	733. 4. 3.	734.11.20.	第 1 船 多 島	4船 중 第 1 船 昆崙에 漂着, 第 4 船 難破하여 歸國못함
4회	752. 윤3.9.	753.12. 7.	第 3 船 益久島	4船 중 第 1 船 安南 漂着, 大使 歸國하지 못함
5회	777. 6.24.	778.10.23	第 3 船 肥前 松浦郡	大使 疋병으로 가지 않음, 副使 遣難死
6회	804. 3.28.	805. 6. 8.	第 1 船 對馬 下縣郡	第 3 船 가는 길에 肥前에서 遣難, 副使 唐에서 死去
7회	838. 6.13.	839. 8.14	大宰府	新羅의 指導로 成功

해서만 中國滯留許可를 얻을 수 있다.

에 두었다.

⑥ 중국은 日本 사신의 지위를 타이족이 雲南 지방에 세운 小國인 南詔國 사신의 지위보다 下位

Ⅶ. 統一新羅와 日本과의 관계

〈표 5〉 668~679년간의 新羅와 日本간의 使人往來와 新羅의 日本政治 指導

遣日新羅使 出發·歸國 遣新羅日本使 出發·歸國	日本에서의 政治的 改革
① 668. 9.12~668.11.5 ① 668.11. 5.~	668.11. 5. 日本朝廷이 전쟁배상물자(絹 50匹·綿 500斤 傘 100枚·船 2척)를 新羅使人에 지급하고 日本使人이 이것을 가지고 新羅使人의 배를 타고 신라에 옴
② 669. 9.11.~ ② 670. 9. 19.~	670. 2. 戶籍 작성 670. 國號를 倭에서 日本으로 바꿈(「三國史記」)
③ 671. 6.~	(670.10. 新羅, 唐과의 海戰에서 大勝)
④ 671.10. 7~671.12.17.	671.10. 8. 日本朝廷에서 百佛의 開眼供養儀式 거행 671.11.27. 日本이 新羅王에 進上할 絹 50匹·綿 50匹·綿 1,000斤·가죽 100장을 新羅使에 수여
⑤ 672.11.24.~672.12.15.	(672. 蕃百濟國內에 軍團 파견하여 唐軍 제압)
⑥ 673. 윤6.15~673.11.21	(673. 9. 新羅가 海戰에서 唐에 大勝)
⑦ 675. 2.~675. 8. (高級軍事官 4인 포함)	
⑧ 675. 3.~ ③ 675. 7. 7.~676. 2.	(675. 9. 陸·海戰<買肖城>에서 新羅가 唐에 大勝)

④ 676.10.10.~677. 2. 1.	(676.11. 海戰에서 新羅가 唐에 大勝)
⑨ 676.11. 3.~677. 8.27. (高級軍事官 1인 포함. 日本國政指示)	(676. 安東都護府 平壤에서 遼陽으로 축출)
⑩ 678.~	678.10.28. 内外文武官의 考仕選任制
⑤ ~679. 9.16.	
⑪ 679.10.17.~680. 6. 5.	

<표 6> 680~701년간의 新羅와 日本간의 使人往來와 新羅의 日本政治 指導

遣日新羅使 出發·歸國 遣新羅日本使 出發·歸國	日本에서의 政治的 改革
① 680.11.24.~681. 8.20.	681. 4. 3. 禁式 92조(服色制 制定)
① 681. 7. 4.~681. 9. 3.	681. 4.12. 처음으로 姓 수여 (683·684·685년도에 姓 수여)
② 681.10.20.~682. 2. 2.	682. 3.28. 日本 古來의 服制(位冠·前裳·褶·脛袋·手襪·肩布) 禁止
③ 683.11.13.~684. 3.23.	682. 4.23. 結髮·乘馬制 실시
② 684. 4.20.~685. 5.26.	683. 3. 2. 僧正·僧都·僧師 임명
④ 684.12. 6.~685. 3.14.	684.10. 1. 8色의 姓 制定
⑤ 685.11.27.~686. 5.29. (日本 國政 指示)	685. 1.21. 冠位制 改定
③ 687. 1.19.~689. 1. 8.	685. 7.26. 朝廷 出仕때 입는 옷(朝服)의 빛깔 정함(新羅式 朝服)
⑥ 687. 9.23.~688. 2.29. (일본 國政 指示)	685.12.19. 王卿 등 55人에 각각 朝服 1습씩 수여
⑦ 689. 4.20.~689. 7. 1.	686. 1.10. 諸王卿에 각각 袍袴(新羅式 袍袴) 1습씩 수여
⑧ 690. 9.23.~690.12. 3.	689.12. 8. 雙六(唐에서 온 유희) 禁止
⑨ 692.11. 8.~692. 2.30.	690. 1.17. 鰥寡孤獨·病子·貧困者 社會福祉 (690. 4. 淨御原令 시행)
④ 692.11. 8(693. 3.16)~	690. 4.14. 文武官의 考仕選任制 補正
⑩ 693. 2. 3.~	690. 4.14. 朝服色 改正
	690. 7. 1. 公卿·百寮人 처음으로 朝服着用
	690.11.11. 元嘉曆·儀鳳曆 사용
	692. 5.23.~694.12. 6. 藤原宮 조영(日本書紀)
	693. 2. 3. 新羅使人이 國王(神文王)의 喪을 알리다.
	693. 3.16. 日本이 使人을 新羅에  파견하여 新羅王의 贈儀 物품을 進하다.
	694.12. 6. 藤原宮 건도(「日本書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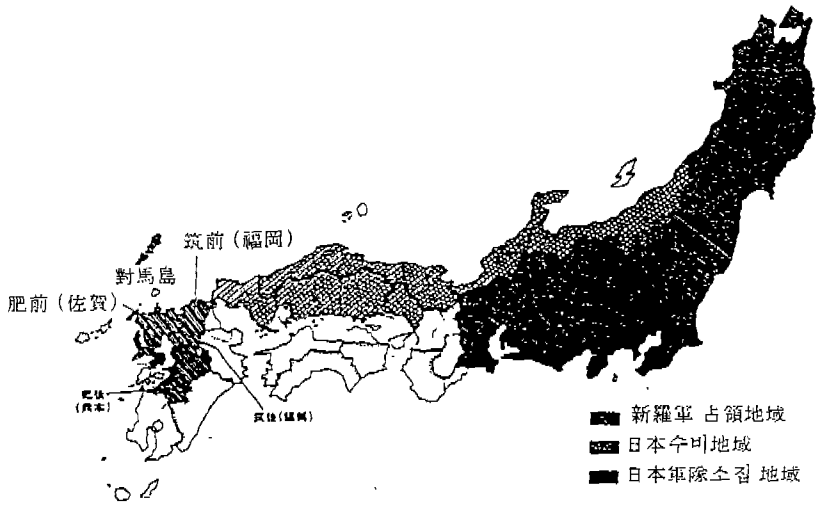
⑪ 695. 3. 2. ~ (日本國政指示) ⑤ 695. 7.26(9. 6)~ ⑫ 697.10.28.~698. 2. 3. ⑥ 698. 3.~ (三國史記) ⑦ 700. 5.13.~700.10.19. ⑬ 700.11. 8.~701.	700. 3.~701. 3. 大寶令  관찰
--	-------------------------

備考 : 鈴木靖民의 遺新羅日本使一覽表에는 日本使 ⑥이 누락되어 있음.

<丑 7> 新羅의 西部日本 支配와 日本의 對應(「日本紀略」)

新羅軍 占領地域	日本의 對應 (A)	日本의 對應 (B)
893. 5. 22. 新羅軍 肥前 上陸	追擊 指示	
운5. 3. 新羅軍 肥後國으로 進軍	追討 指示	
운5. 15.	軍事訓練 · 城塞警戒 指示	
6. 22	追討 指示	
894. 3. 13.	追討 指示	
4. 14. 新羅軍 對馬島 上陸	釋放 指示	諸神에 幣物捧納
4. 16.	新羅擊退將軍 任命	
4. 17. (北陸 · 山陰 · 山陽에 討伐 指示, 수비 지시)	討伐 指示	
4. 18. (東山 · 東海道 勇士 指示)		
4. 19.		
4. 20. (陸奥 · 出羽의 警戒 指示)		伊勢神宮에 幣物捧納 諸神社에 幣物使 派遣 山陵에 使人 派遣
5. 7.	大宰府 固守 指示	
9. 3.		伊勢神宮에 幣物捧納
9. 5. 新羅軍船 45척 對馬島 도착		
9. 18.		佛經 읽음
9. 19.	新羅兵 200여명 타살 警戒 지시	
9. 23.		山陵에 使人 파견
9. 30.	新羅兵 20여명 타살	
10. 6.	諸國에 警戒中止 指示 勳8等인 諸神은 勳7等으로 (10. 8.) 筑前の 宗像大神에게 勳7等 授與(11. 5.)	





(그림 2) 新羅軍 占領地域(『日本紀略』)